

朝鮮 儒教 淵源(續)

朴淵祚

靜菴趙先生行狀

先生の姓은 趙氏오, 諱는 光祖오, 字는 孝直이오, 自號를 靜菴이라 趙氏가 漢陽著姓이 됨에 七代祖良琪가 高麗總管이 되야 元世 祖朝에 副師로 哈丹兵을 破하여 俘를 獻하니 元帝가 袍帶로 獎勵하다 高祖諱溫 朝鮮 開國 功臣으로 漢川府院君을 封하고 諡는 良節이라 漢川이 義盈庫使 諱育을 生함에 吏曹參判을 贈하고 參判이 成均館司藝諱衷孫을 生함에 吏曹判書를 贈하고 判書가 諱元綱을 生함에 司憲府 監察로 吏曹參判을 贈하니 즉 先生의 皇考오, 妣는 驪興閔氏 縣監誼의 女라 壬寅 八月 十日에 先生을 生함에 異質이 有하야 少時嬉戲에 成人의 儀度가 잇슴에 사람의 非違를 見하고 문득 指言하더니 및 長成함에 讀書修業하야 慷慨히 大志가 有하되 오직 科擧文에 屑念치 아니하고 聖賢의 風을 興慕하야 博學力行에 成就를 自期하더니 年十九에 早孤하고 奉母家居에 至誠色養하야 孝義稱道가 邦國에 達하더라. 庚午進士試에 居魁하고 辛末에 內艱을 遭하다. 乙亥夏에 廷臣이 孝廉으로 薦聞 됨에 造紙署司紙가 되고 是年秋에 中廟 謁聖 別試에 應하야 乙科第一人及第가 되야 成均館 典籍을 授하고 司憲府 監察로 司諫院正言에 遷하다. 章敬王后의 喪에 潭陽府使朴祥과 淳昌 郡守 金淨이 上疏하야 愼氏의 坤位를 回復함을 請하거늘 朝議가 當言할 바 아니라 하야 拿鞠을 請함에 일이 不測할지라 先生이 力爭 曰 愼氏는 진실로 復位치 못할 것이나 疏中에 말이 또한 有理하니 加罪로 言路를 막지 말 것이라 함에 二公이 이로써 免함을 得하니라. 弘文館에 選入하야 修撰校理 應教典翰을 지내고 丁丑에 同副承旨로 陞帙됨에 玉堂의 長과 君德을 養함이 此人이 아니면 不可라 하다. 玉堂으로써 副提學이 되였더니 主上이 儒術을 雅尙 하고 文治에 銳意하야 唐虞二代의 盛을 復見코자 더욱 先生을 倚重하심에 先生도 不世의 恩遇를 感하야 致君澤民과 斯文興起로 己任을 삼고써하되 君心은 出治의 本이라 其本이 不正하면 政體가 立지

못하고 教化가 行치 못할 것이라 하여 每入對함에 반다시 齋心肅慮에 神明을 對함과 갖치하여 知한 바는 不言함이 업고 言한 바 이直지 아니 함이 업서서 그 進戒의 辭에 曰 人의 一心이 天地와 그 大가 同하고 日月과 그 運이 同한지라 其 理가 欲에 蔽함으로 大한 者가 小하고 氣가 私에 梏하여 運한 것이 塞함에 常人으로도 其害를 勝言치 못하거던 하물며 人君의 勢位가 高亢에 驕佚을 易致하고 聲色誘陷이 常人에 萬倍되야 心이 한번 不正하고 氣가 한번 不順하면 兆가 冥々에 應하여 孽이 昭々에 作함에 彝倫이 斲하고 萬物이 不遂할지니 主上이 存心事天에 中和의 極功을 致함이 맞당히 엇더하리오. 義理王伯의 辨과 古今治亂의 幾와 君子 小人 進退 消長の 戒를 罄竭이 詳論極言치 아님이 업시 혹 日昃에 至함에 上이다. 虛心傾聽하여 日로 獎勵를 더하더라. 戊寅春에 賢良科를 設하여 取人코자 할새 先生이 啓曰 上의 志治가 成效치 못함은 人材를 不得한 咎답이라. 만약 此法을 行하면 人材不得함을 不患할 것이다. 兩司와 玉堂이 昭格署罷하기를 請한지 累月에 允許치 못한지라. 先生이 政院에 詣하여 同僚에 詔 曰 今日에 蒙允치 못하거든 退치 못하겠다 하고 至夕에 臺諫이 다 退하거늘 玉堂이 論啓하여 允許를 得한 後에 乃出하니라. 처음 會寧城底野人速古乃가 野人과 通謀하여 甲山府界에 人畜을 多掠하더니 이에 南道兵使秘啓를 因하여 本道에 密旨하고 李之芳을 遣하여 그 伺隙으로 掩捕하여 法에 置코자 할 새 上이 宣政殿에 御하여 臨遣에 將相諸臣이 環侍하얏더니 先生이 自外來請 曰 此事가 盜賊狙譎의 謀와 갓고 王者의 禦戎하는 道가 아니라 堂々大朝로서 么麼醜虜를 爲하여 盜賊의 謀를 行하니 辱國損威 됨을 부스러하노이다 한대 上이 更議하기를 命하시거늘 左右가 爭言하되 兵家에 奇正이 잇고 禦戎에 經權이 잇거늘 웃지 一人의 言으로 改之하리오, 兵曹判書 柳聘年 曰 耕은 奴에 問하고 織은 婢에 問하는 것이다. 臣이 自少로 北門에 出入하여 虜情을 備諳하나이다. 上이 오히려 衆議를 却하고 罷遣하게 되니 上이 先生을 待하심과 先生의 得君이 可謂兩至하얏다. 其 一時善類가 眷遇를 被한 者 | 一二가 아니라 서로 贊襄을 協力하고 事功을 奮起하며 宿弊를 剷革하고 教條를 修明하여 先王의 法도가 次第로 舉行됨에 小學이 育材의 本이며 鄉約이 化俗의 方이라 百僚가 聳勵하고 四方이 風動한지라. 그러나 諸公의 뜻이 欲速에 未免하여 무릇 建白施設이 鋒穎이 太露하고 張皇無漸하며 또 年少喜事의 人이 時好를 投合하여 紛紜을 鼓作하는 者 | 其間에 多側하며 舊臣의 時議에 見容치 못하여 因事攻擊에 怨이 骨髓에 入하니 先生이 其幾를 早見하고 道의 行치 못함으로 避位코자 한지 久矣라 是冬에 嘉善에 特陞하여 大司憲을 拜하고 世子左賓客을 兼하다. 先生이 驟躋를 大恐하여 控懇力辭하얏스나 上眷이 愈隆에 더욱 不許한지라

先生이 辭退치 못함에 憂懣의 色이 滿容하되 웃지할 수 업는지라 己卯春에 金友曾의 士林誣毀하는 事가 發하여 廷訊할 새 先生이 臺長으로 參禮하얏더니 兩司가 友會를 窮治아니 함으로 論遞하다가 政府啓로 仍任하얏더니 그 후에 朝論이 靖國功臣의 錄券濫授한 者를 追奪코자 할 새 先生이 其 議에 同한지라. 대개 先生이 既不得去인 즉 紀綱을 把握하여 激濁揚淸하고 令行禁止함이 當然할 바이나 時勢가 可憂함으로 臨事에 調劑의 意를 두지 아니치 못함은 其他 申公鏞 李公耜 權公撥의 所見이 皆然함이 隨時의 義에 適中하거늘 저 矯激輕銳의 輦가 도로혀 先生으로서 依違苟循하여 檢邪와 迹同하다 하여 斥去彈劾함이 煩數한지라. 群怨이 榜에 在하여 磨牙鼓吻에 日로 間隙을 伺하다가 駭機大禍가 忽然히 神武의 變을 作하얏스니 嗟乎라 可히 勝言하라 當日의 事는 國乘이 自在하나 首相의 流涕牽裾가 天에 誠動하여 幸히 雷霆의 威를 少霽하얏고 諸生의 守闕號哭과 禁府爭囚은 더욱 讒鋒의 藉口가 되니 此 | 蘇軾의 張方平救已言에 吐舌한 바이다. 先生이 十月日에 綾州에 謫하얏다가 後命이 十二月 二十日에 至하거늘 先生이 沐浴更衣하고 從容히 都事에 謂 曰 主上이 賜死한 罪名을 恭聽하고 死하겟노라 한대 都事가 無應하다 先生이 又 曰 愛君如愛父 天日照丹衷이라 하고 遂卒하니 享年三十八이라 明年 某月日에 龍仁縣某里先人兆에 歸葬하얏다. 先生의 天分이 異甚하여 等夷에 絶出함은 鸞停鶴峙오, 玉潤金精이며 또 猗蘭의 播芬과 皓月의 揚輝와 如한지라. 年十七八에 慨然히 求道의 志가 有하더니 時에 參判公이 魚川察訪이 됨에 寒暄金先生이 熙川에 滴在하얏더니 先生이 寒暄의 學이 淵源이 有함을 素聞하얏더니 因하여 趨庭從遊에 爲學의 大方을 得聞하얏다. 대개 우리 東國 先正이 道學에 文王을 不待하고 興起한 者 | 有하나 其 歸趣는 節義章句文詞間에 在하고 그 爲己에 專事하여 眞實 踐履로 學한 者는 오직 寒暄이 爲然이라. 先生이 亂世를 當하여 險難을 冒하고 師事之하얏스니 비록 常日講論授受의 旨를 得聞치 못하얏스나 先生後來嚮道의 誠과 志業의 卓이 如彼히 發端됨이 진실로 此에 在하도다. 아즉 可見의 實로 말씀하면 其 爲學이 小學을 篤信하고 近思를 爲尙하여 모든 經傳에 發揮하고 平居에 夙興歛躬에 儼然肅然에 冠服威儀의 愆도가 업고 出言制行에 古訓을 稽함이 其 持敬의 法인저 일즉 天磨山과 龍門山에 入하여 講習의 暇에 兀然終日하여 潛心對越에 本原을 涵養하고 堅固刻勵함이 人의 莫及함이 其 主靜의 學인저 孝友의 行이 天性에 出하여 家廟日拜를 風雨不避하고 奉養承順이 曲盡하며 正으로서 治家에 內外가 截然에 恩信이 行하고 淸節로 自勵하여 自奉이 寒士와 如하다. 일즉 夫人에 謂 曰 國事に 留心함으로 家事에 念及지 못한다 하다. 宅産을 經營함이 업고 關節을 通치 아니하고 騶直을 不納하여 其省身克己함이 恒상

不及함과 갖더라. 少日에 偶然이 女色을 만나서 將近에 窶 靡避하얏스며 麴
 蘖害性的 戒를 더욱 勉勵하야 朋友의 酒로서 失儀함을 봄에 峻黃을 加하고
 居喪에 憂感을 極히 하며 追遠에 試敬을 다하며 後生을 獎進하되 各其材를
 因하며 異端을 論關함에 根本을 先正하며 素履가 有聞에 率世의 才가 足하
 며 英華가 發外에 動人의 風이 足한지라. 일즉 下輦臺 御座에 先生이 大憲으
 로 從班할 새 因事挺身에 趨出過前할 새 그 儀表를 望함에 百僚가 盡傾하야
 門에 環橋한 者가 咨嗟歎息에 語不容口하니 그 一時聳服됨이 如此함은 自任
 의 重이라 이르되 吾君이 堯舜되고 吾民이 仁壽에 躋하야 其 忠이 金石을
 貫하고 其勇이 賁育을 奪하며 匪躬의 王臣으로 九五의 盛際를 當하야 進한
 즉 日로 三接하고 退한 즉 人爭額手함이 上下가 交欣하고 千載一時라 可謂
 할 것이다. 웃지 天이 陰沴으로 其 間에 蹶踈치 아니치 못하야 上으로 其 志
 의 大行을 不見하고 下로 其澤을 普被치 못하니 이는 時運 關하고 邦厄에
 係하야 天地의 所憾이오, 鬼神의 所戲니 先生이 웃지 하리오. 하물며 先生이
 일즉 許上舍伯琦로 童艸의 駭俗을 말슴하시고 成秀才守琛으로 鄉約의 難行
 을 憂하신 즉 自任이 비록 重하나 固必의 意는 업는 것이다. 밋 憲長을 力辭
 하다가 得免치 못함에 憂深이 如彼하고 奇公遵이 山林獨往의 歎을 發함에
 稱道하얏스 즉 急流勇退는 其 雅素의 志라 願컨대 近世士大夫를 待함이 古
 義를 不循하야 求去得請의 例가 업고 臣僚致仕의 路가 絶하야 一立于朝에
 病棄罪斥 外에는 去國지 못한 즉 先生이 비록 不습으로 退하고 見幾로 作코
 자 하나 其 能이 其 志를 遂할가. 이미 其 退를 不遂인 즉 禍患의 來를 웃지
 智計로 免할 것인가. 이가 先生의 所遭가 益難이 된 바이다. 그러나 日月의
 光이 依舊히 氛翳의 釋에 明하고 義理의 感이 더욱 是非定함에 愈深하다. 中
 廟末年에 乾心이 洞鑑하고 物論이 昭雪하야 渙恩의 漸이 有한지라. 仁廟 卽
 位에 廟堂의 申論과 館學의 籲天으로 因하야 先志를 克進함에 先生職帙을
 命復如初하다 嗚呼라 天道의 本이 有焉에 人心의 固를 難誣이오 放勳이 遺
 意가 有함에 重華의 成美한 바이다. 自是로 士學이 知方에 世治가 重熙하고
 斯文이 可賴에 國脉이 無疆하다. 이로 말하면 一時士禍가 비록 於悞하나 先
 生崇道倡學의 功은 後世에 及할 漸이라가 위하겠도다. 또 一說이 잇스니 衰
 周 以來 聖賢의 道가 一時에 不行하고 萬世에 行하니 대개 孔孟程朱의 德과
 才로 王道를 興함이 反手와 갓거늘 其 終에 成就된 바이 立言垂後에 不過한
 지라. 其故何哉오, 天에 在한 것은 可知치 못하고 在人도 또한 一槩로 論치
 못할 것이다. 그런 즉 先生의 進함이 旣히 是名으로서 하얏스 즉 世에 有爲
 치 못함이 恠異함이 었다. 호을로 恨된 바는 退하야 其 實을 大聞하야 東方
 後來를 幸치 못함이다. 天이 大任을 是人에 降하심에 웃지 早成으로 遽足하

리오. 반다시 中晩에 積累한 後에 大備하니 만약 先生으로 聖世에 驟用이 되지 아니코 家食에 婆娑하고 窮閭에 隱約해야 더욱 此學에 肆力하고 磨襲沉涵에 年時를 久積하얏스면 研窮한 것이 貫徹해야 더욱 高治하고 蓄養한 것이 崇深해야 더욱 博厚하고 灼然히 洛建에 探源해야 洙泗에 接響할지니 이것을 즉 一時에 過함이 行해야도 可하고 不行도 亦可하다. 所恃함은 斯道斯人을 爲해야 立言垂後의 一段事 짜람이다. 즉금 先生은 그러치 못하여 一不幸이 登擢太驟오, 再不幸이 求退美遂오, 三不幸이 謫日斯終이라. 이른 바 中晩에 積累함이 暇及지 못하고 立言垂後의 事도 또한 逮及지 못하얏스 즉 天이 是人에 大任을 降하심이 마침내 웃지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럼으로 今日에 其 緒餘를 推尋해야 人心을 淑하고 正學을 開할 道는 梢的 可據의 處가 업슴으로 斷々의 무리와 悠々의 談이 禍福成敗間에 脫然치 못하여 此道의 益媮에 至한 즉 이에 指目を 作해야 行身한 者가 諱한 바이 잇고 訓子한 者가 爲戒하고 善良을 仇한 者嚆矢를 삼아서 그들 吾道의 病이 되니 嗚呼라. 이것이 웃지 放勳의 遺旨와 重華의 克追로서 斯道를 媮하고 國脉을 壽할 盛意리오, 이것이 또 後來聖君賢相의 世道責任한 者의 深憂永鑑해야 力救할 것이다. 그럼으로 邇年 以來로 轉移更張에 好惡을 明示하는 者 一二에 不止하고 世의 爲士者도 오히려 王道를 尊하고 霸術을 調하며 正學을 尙하고 異敎를 排해야 治道가 修身에 本하고 灑掃應對가 窮理盡性에 이르러 稍稍로 能히 興奮發해야 有尊함이 誰의 功이며 孰使然이리오, 上天의 意를이에 可要이오, 聖朝의 化가 이이에 無窮한 것이다. 先生의 內子는 僉使李允洞의 女라. 二男을 生하니 長曰 定 早卒 季曰 容全州判官 先生의 沒에 二子皆幼하고 또 畏避한 바 有해야 志行의 述을 屬筆치 못하고 其事蹟의 在人耳目者 一湮滅에 漸至한지라. 中間洪上舍仁祐가 行狀一道를 撰하고 往年에 判官이 그 從姪忠男을 遣하여 洪狀오로서 滉에 提曰 碑石이 已具함으로 銘文을 請하여 墓道에 表코자 하노라. 滉가 不文으로 辭하고 또 謂曰 碑文을 欲作커든 行狀을 先求함이 可하다. 今에 洪狀을 觀함에 極히 疎漏한지라. 다시 事蹟을 博訪多得해야 當世大手人의 行狀을 完補한 後에 碑文을 圖함이 未晩이라 하얏더니 近에 判官이 또 遣人致書하고 陰崖日錄 等 數件文字를 示曰 事蹟을 多得지 못하고 四顧에 吾先을 爲해야 把筆者이 업스니 敢再三瀆請으로 詞情이 甚哀한지라. 滉自念 先生의 門에 樞衣치 못하얏스나 先生의 賜를 受함은 多한지라. 이미 碑文을 辭하고 또 行狀을 不爲함이 웃지 情至事從의 이름이 리오, 또 洪은 志學의 士오, 先生里閤人이라 其爲狀됨이 비록 간약하나 반다시 徵據한 바가 잇슴으로 狀中에 就해야 後得文字를 參하여 添減을 梢加에 此文을 作해야 判官의 孝懇을 塞하고 또 繼續聞見이有하면 거의 此를 因하

야 完就될 것이다. 만약 此로서 他日秉筆者의 상고함이 된 즉 先生의 學問 事業 言論 風旨가 史冊에 載하고 思詠에 播한 者ㅣ 尤多하니 엇지 이로서 限하리오.

嘉靖四十三年 甲子月日

眞城李滉謹狀

戒心箴并序

人之於天地 稟剛柔以形 受健順以性 氣則四時而 心乃四德也 故氣之大浩然無所不包 心之靈妙然無所不通 況人君一心 體天之大 天地之氣 萬物之理 皆包在吾心運用之中 一日之候 一物之性 其可不順吾度 使之乖戾邪枉耶 然人心有 欲所謂靈妙者沈焉 梏於情私 不能流通 天理晦冥 氣亦否屯 彝倫斁而 萬物不遂 況人君聲色臭味之誘 日湊於前而 勢之高亢 又易驕欺

聖上是念是慎 命臣述戒 嗚呼至哉 敢披割丹衷 冀補萬一

天地網緼 大化惟醇 氣通而形 理承其眞 斂括方寸 萬象彌綸 渾然昭晰 神用不忒 充微著顯 式揭人極 擴準四海 功躋位育 偉哉靈妙 於穆天通 巍々堯業 亦此之衷 然體活虛 物感無從 情熾紛挐 潛移厥志 闕然昏沉 蕩乎奔馳 妙綿晷刻 衆慝恣萃 彝倫旣斁 天壤易位 生意隨遏 群品不遂 自絕速禍 癸辛之喪 君子是懼 動靜有養 敬以內持 義以外防 惺惺介然 視聽有常 祇栗室幽 上帝臨赫 凜然自守 神明肅々 涵濡勿替 循々允修 涓々其澄 浩々其流 發揮萬變 卓然噉日 義形于事 仁溥於物 沖融和粹 盎然兩間 嗚呼操舍 善惡攸關 故聖授受 只傳心法 難明者理 易流者欲 惟精惟一 庶存其德 願 上體躬戒懼翼々 克非如敵 發稍若茁 察守惟密 中執屬々 存心太極 永保無斁

經筵陳說

學者以聖賢爲期 未必卽至聖賢之域 人主以唐虞三代爲期 未必卽致唐虞三代之治 然立志如此而 用功於格致誠正則 漸至於聖賢之域 堯舜之治矣 若使驚高遠而 不下實功則 日趨浮虛之地而已 自廢朝以後 師友之道頓廢 間或有所師 有所友則 人必指以爲禍胎矣 人君亦必以最賢者 爲師 次者爲友 尊禮之可也 宋之仁宗 欲知勞苦 常於宮中學步 以試之 古人宴安乃鳩毒 若習安逸則 善心不生矣

君子小人辨

一心光明然後 可辨君子與小人也 人主格致誠正之功 未至則 或以君子爲小人 或以小人爲君子矣 君子固以小人爲小人而 小人亦以君子爲小人 若世道不明 奸臣蒙蔽則 辨之實難 小人之攻君子 或曰言行各異 或曰欲釣善名 君子有同心協力 以謀國事者則 或指以締結專權 若聽其言迹其行則 亦可辨也 士大夫固欲保全門戶 況人君守祖宗莫大之業 孰不欲用君子 退小人以保全其社稷乎 然且不能者 由辨之不早也 君子小人如水炭之不相容 小人晝思夜變 日以攻君子爲意 必

芟夷誅戮然後已 若使之得售其術 慘酷之禍 可勝言耶

君子小人之辨 後世尤難焉 古者人君接群臣不時而 事無不言 所懷皆吐實 不啻如子弟之於父兄故 人君見其事 聞其言而可知其爲人矣 今則接見有時 禮貌有規 惟不賢之人 入侍之時 修飾善言以啓 不能察其情僞故 辨君子小人難矣 今者如程朱之類 未必有之 亦不可謂必無矣 聽言觀行 乃觀人之道而 以貌取人 孔子所戒 人君當更體念心地既明則 邪正不能遁其情矣 但人心操舍無常 若以至言正事爲拂逆而拒之則 衆君子皆退去矣 其後雖欲正之 群邪已滿於左右 無所及焉 昔宋神宗賢君也 以堯舜之治爲心而 擯斥司馬光 信住王安石 以致小人并進 其後欲斥安石而不可得也

以侍讀官進曰 重臣爲國忘身 擔當大事則必有人望 人望所歸 有似專權故 人君學識不足則 未免見疑 自古君臣猜阻 致敗國事者皆以此也 人君當辨君子小人 知其爲君子 任之不疑 知其爲小人則 待之以嚴可也 欲知小人則 當於妖媚處見之 辨小人至難 辨君子至易 用其易知者 信任焉則 雖有小人 自不能放恣矣 但履霜堅冰至 至若知其小人而 不能斥逐則 後必有害故 早斥爲貴 大抵常人 其心果善則 必思慕善人而欲見之 其心不善則 其過善人必畏縮而不喜相見 天理之發見也 大賢則尚矣 中人以下爲善爲惡 隨時所尚焉 在上之其可不盡勸勵之道乎

邪正之辨

人心一有所之則 離道矣 此言甚爲精微 文章未是惡事而 偏着足以喪心 況酒色蠱心敗德之大者乎 雖曰存心於學問治道而 一有所嗜好則 所向不能專一矣 大抵心無二用 向善則背惡矣 夫文與書可謂一事而 習文者不暇於習書 理固然也 若意誠心正之功 到十分盡處則 可保無虞矣 不然則嗜好之害 不可不慮也 體認古書 以爲某事可學而 某事不可學 以求積累之功則 雖一講一張 所得亦多矣 如不然則 雖一講十章 亦知爲虛文矣

崇儒下士

今之學術甚壞 館中儒生 雖無悖禮之事 立志甚卑 泮宮人才之所自出而 不見傑特者則 安有爲國忘身 慷慨獨立者乎 士習頹靡 莫大之患也 變化之道豈無其方 如金宏弼鄭汝昌者 褒獎則可以扶植斯文矣

世宗朝大臣與集賢儒士 互相責難 及其末年 造內佛堂 大臣諫之而不聽 集賢學士亦極諫之而不聽 學士皆退歸其家 集賢殿爲之一空 於是

世宗墮淚 召黃喜曰 集賢諸生棄我而去 將若之何 黃喜曰臣請往諭 遂遍往諸學士家 懇請以來 如此然後 士氣可以培養矣 若非世宗爲君 黃喜爲相則 君必以棄去發怒焉 爲相者亦必不肯屈身遍請而 反以此爲辱矣 非特此也 太學儒生 路逢黃喜面詰之曰 汝爲相 不能格君之非耶 喜不以爲怒 乃以爲喜大臣之道常如是也 故世宗之治至今稱之

墓誌銘 李珥

青璣有學 肇殷父師 化逝言泯 墜緒罔追 猗嗟寒暄 孤倡濁時 刻羽絕和 始然就微 天不喪文 篤生先生 先生間氣 漢嶽鍾精 一片崑璧 瑩絕纖瑕 夙抱高識 求道靡他 撥機尋師 入室操戈 爰啓正軌 任大道遐 既切既磋 亦琢亦磨 動容周旋 規圓矩方 吾斯未信 韞櫝而藏 猗蘭播芬 欲掩彌彰 觀國之光 乃賓于王 契孚魚水 委身徇國 志撐宇宙 忠貫日月 矢回淳風 以敦滄俗 禹鼎漏妖 河麋逞慝 參天豫章 一斫斯倒 三光失晶 四民齊悼 天啓聖衷 廓開氛祲 歷世加褒 伸枉起歎 士誦其語 人服其化 茅開蹊逕 燭揭昏夜 鬱々駒城 山紆水長 有斐令德 沒世不忘

晦齋李先生行狀

先生の 姓은 李氏오, 諱는 迪이니 中廟께서 彦字를 命加하셧고 字는 復古오, 自號를 晦齋오, 又號紫溪翁 其 先은 驪州人이니 鄉貢進士世貞의 後라 迎日에 移하얏다가 慶州良佐村으로 復遷하다. 高祖諱權副司直 曾祖諱崇禮 贈兵曹參判 祖諱壽會 訓練院參軍 贈吏曹判書 考諱蕃成均生員 贈議政府左贊成 妣는 貞敬夫人孫氏 精忠出氣敵愾功臣鷄川君昭의 女라 弘治辛亥에 先生을 生함에 異質이 有하고 九歲에 孤하다. 稍長에 力學能文하고 學業을 旁通하야 癸酉生員試에 中하고 甲戌別科朴世燾榜에 登第하니 年이 二十四라. 校書館正字를 權知하얏다가 尋에 正字가 되다. 戊寅冬에 參軍公이 沒커늘 先生이 承重居憂하야 制甚勤하고 服闋에 博士에 陞하얏다가 辛巳秋에 侍講院說書에 選하야 吏曹佐郎이 되다. 甲申에 仁同縣監이 되고 丙戌에 司憲府持平으로 召還하야 掌令이 되고 己丑에 成均館司成으로 密陽府使가 되야 臨民御吏에 條法이 有한대 吏戢民懷하다. 庚寅에 司諫院司諫이 되엿더니 時에 金安老가 屏黜에 久在한지라. 朝廷이 引用하기를 議하되 東宮이 孤單함으로 此人으로 羽翼을 삼고자 하더니 대개 安老의 子延城尉가 公主에 尙하야 東宮에 有力함 니라. 此說을 倡한 者는 正言蔡無擇이라. 無擇은 安老의 妻黨이 됴므로 이로 서 安老得路키를 일삼거늘 大司憲沈彦光等이 隨聲和附에 舉朝가 靡然하되 先生이 獨히 其 不可를 力言하야 無擇으로 더부러 不稱하야 無擇이 正言에 褫任되거늘 物論이 先生의 立異를 訾하야 直講으로 左遷하다. 先生이 一日에 沈彦慶兄弟에 過할 새 彦光이 曰 直講이 웃지 安老의 小人됨을 아느냐 先生이 曰 安老가 東京에 尹할 時에 其處心行事를 熟觀함에 眞히 小人의 情狀 이라 此人이 得志하면 誤國이 必矣라. 彦慶이 曰 비록 入하나 웃지 權柄을 授하리오, 東宮만 爲할 사람이다. 先生이 曰 不然하다. 만약 入하면 國鈎을 秉하야 專擅用事하면 誰가 禦하리오. 또 東宮은 一國臣民의 屬意한 바 어늘 웃지 安老를 待하야 安하리오, 彦光이 怒起하야 朝에 宣言 曰 李某가 在朝에 安老가 得入지 못한다하고 드디어 劾罷하야 田里에 歸하다. 安老가 既至에

先生의 攻己語를 듣고 甚怒치 아니 하더니 慶人이 財物로 求官한 者 | 有하
 거늘 安老 | 其人에 謂曰 李某의 알게 말라하다. 丁酉冬에 安老가 敗死함에
 中廟께서 先生의 忠直을 思하야 叙復을 命하고 宗簿僉正으로 掌樂에 遷하얏
 다가 校理應教가 되고 檢詳을 由하야 舍人에 至하얏다가 直提學으로 陞帙하
 야 兵曹參知가 되다. 已而오, 全州에 出尹하야 歲中에 府境이 大治하야 其
 民이 立碑頌德하다. 先生이 비록 親老로 乞郡하얏스나 其愛 君憂國이 一日을
 忘懷치 못하야 災異求言을 因하야 數千言上疏하얏스니 其 疏 綱이 一이니
 曰 人主心術이오, 爲目이 十이니 曰 嚴家政 曰 養國本 正朝廷 慎用舍 順天道
 正人心 廣言路 戒侈欲 修軍政 審幾微 所言이 無非 格君心 措時務 啓沃謀猷
 極其忠讜 中宗大王이 獎歎을 深加 曰 古의 眞德秀 此에 過함이 업을 것이다.
 命하야 東宮과 外朝에 傳示하다 特旨로 嘉善에 陞하고 兵曹參判을 拜하
 거늘 先生이 謂하되 採言을 蒙하면 幸矣오, 僭賞은 敢當할 바 아니라하야 上
 箋力辭한대 上이 不許하다 이에 禮曹參判을 歷하야 大司成大司憲副提學이
 되야 館에 在함에 또 上疏하야 聖學本末과 時政得失을 極陳함으로 資憲에
 陞帙하고 尋에 議政府右參贊을 加하야 吏刑禮判書를 轉하야 左參贊이 되다.
 癸卯에 安東府使되기를 請한대 諫院이 啓留하거늘 先生이 母夫人의 老病在
 鄉으로 陳情乞養한대 上이 慰諭 曰 卿辭는 至切하나 進退가 有關함으로 本
 道를 命하야 食物을 諭給하고 또 將母來京을 命한대 先生이 더욱 惶恐感激
 하야 請外愈力한대 朝廷이 不得已하야 本道監司를 除하야 其 情을 少遂케
 하다. 甲辰에 漢城判尹이 되여더니 十一月에 中宗이 昇遐하심에 日夜憂慟하
 야 病益重하더니 仁宗이 卽 位에 召命을 降하거늘 乙巳正月에 右贊成을 擢
 拜하야 先生이 上狀辭病한대 上히 下旨敦諭 曰 往年에 先生이 卿疏를 賜觀
 하심에 歎服하얏고 또 書筵講說을 聽함에 爲卿留意함이 久矣라 이에 藥物을
 賜하고 調理上來하기로 命하다. 夏初病稍間에 비로소 造朝할 새 時에 先生이
 兩朝知遇의 隆함을 感하야 自力一行함이 有爲코자 함이라. 仁廟不豫日久에
 國事의 隱憂를 勝言치 못할지라 先生이 일즉 領議政尹仁鏡에 私謂 曰 當今
 主 上이 無嗣하고 大君이 年幼한대 世弟로서 國本을 定함이 何如한가 仁鏡
 이 曰 公言이 마당하나 但今山陵纔畢에 詔使가 臨迫하니 何暇及此리오. 七月
 에 仁廟昇遐하시고 今上이 嗣服에 垂簾을 儀를 擧할 새 百官이 賓廳에 會議
 하더니 仁鏡이 曰 大王大妣와 王大妣가 何殿이 聽政에 當할가 左右가 默然
 하거늘 先生이 曰 昔에 宋哲宗時에 太皇太后가 同히 聽政함이 古例가 有하
 니 疑問이 無하다. 兪지 嫂叔이 同御殿의 理가 有하리오. 今에 垂簾의 儀만
 定할 사람이라 한 대 由是로 朝에 他議가 無하더라. 經筵을 始開할 새 先生
 이 入參하얏더니 玉音의 琅然함을 聞하고 喜淚를 不覺하야 春秋館에 退詣하

았더니 柳仁淑이 主上의 讀書如何를 問하거늘 先生이 曰 聖質이 英明하여 讀書에 一字錯誤가 無하니 宗社臣民의 福이라. 八月政府書啓十條에 一은 請慈殿의 善導 聖質, 二는 請博選 經筵官하여 恒時로 講演遊處에 聖學을 進할 것이오, 三은 殿下께서 大行大王에 子道와 臣道가 有하니 喪禮를 盡誠할 것이오, 四는 宮禁을 嚴하고 戚里를 防할 것이오, 五는 宮人을 慎擇이오, 六은 特旨를 勿用이오, 七은 判付를 勿用이오, 八은 政院職出納惟允과 內旨의 不肅을 封還함이오, 九는 宮中府中이 一體가 되야 私門을 勿開에 平明의 理를 昭함이오, 十은 大行大王學問의 效가 公道大行에 至治를 望하더니 今上이 嗣緒에 其 機가 甚重하니 兩殿의 留神을 願함 大率先生의 筆定한 바이라. 已而 오, 尹任의 罪를 治할 새 兩殿이 忠順堂에 同御하여 密旨로 宰臣을 引見하더니 時에 天威가 震赫하여 敢히 少拂치 못할지라. 先生이 進 曰 人臣의 義에 所事에 當專할 것이어늘 彼時에 當하여 大行王에 專心함을 웃지 深罪하리오. 또 舉事를 當顯明할 것이어늘 不然이면 士林의 禍가 有할가 恐하나이다. 聞者가 縮頸하되 先生은 懼色이 無하더라. 尹仁鏡이 啓 曰 垂簾을 初議할 時에 李彦迪이 臣에 問하되 何殿이 聽政에 當할가 臣이 答하되 慈殿이 當聽政이라 하거늘 先生이 位稍遠하여 己名을 舉함만 聞하고 心疑하여 注書日記를 取함에 그 誣啓의 實을 檢得하얏스나 尹의 重罪를 得할가 恐하여 書啓하되 仁鏡의 言이 반다시 如是치 아니할지라 注書記錄의 誤함이 安인가 하얏더니 上이 其 單을 賓廳에 下한대 仁鏡이 失色하여 對치 못하고 左相洪弼이 囑하야 曰 忠順堂이 狹隘하여 記注官進退에 不便하니 이것이 반다시 注書誤聞의 咎달이라 한대 先生이 다시 辨明치 아니하다. 是月에 忠順堂 入侍宰樞를 定難衛社功臣의 號를 錄할 새 先生이 力辭하야 웃지 無功濫受로 王典을 紊亂 하겠나냐한대 不聽하다. 丙午春筵에 曰 先賢의 言에 君德의 成就是 經筵의 責이어늘 臣이 是職에 忝하야 日夜憂懼에 稱塞치 못한지라 先儒程頤의 格言 至論이 聖德에 有■한 것을 條獻하니 幼主를 輔導하는 切要의 言이라. 殿下께서 深信力行하시면 聖功에 有補할 것이오. 또 輔養의 道에 講磨規箴은 經筵에 在하거이와 宮中保護는 專히 慈殿에 在하니 主上三朝의 際에 勤學問 敬大臣 納諫諍 近正人 遠邪佞 畏天命 恤民隱等事를 勉諭하되 修身進德으로 爲本하야 視聽言動을 禮에 一遵하야 古의 聖帝明王으로 法則을 삼아서 聖德이 日就하심이 宗社無彊의 福이라 하다. 三月에 省親將行에 進筵하되 王者가 正心하야 朝廷을 正하며 朝廷을 正하야 百官을 正하며 百官을 正하야 萬民을 正하되 正心의 要는 講學明理 親賢遠邪에 在할 따람이라. 聖賢의 訓에 沈潛하고 義理의 源을 窮格하면 方寸의 間에 天理가 日明하고 人欲이 日消하며 親賢臣遠邪佞하면 薰陶匡救의 益이 有하고 一曝十寒의 患이 無할지니 君

父에 望한 바 더욱 深切한지라. 그러나 當時氷炭의 勢가 相容키 難함이 有한 지라. 三上章에 辭職을 乞한대 이에 判中樞府事로 命遞하다. 時에 禮官이 當 寧并垂簾하기를 請하더니 先生이 聞之하고 上筭하되 人君의 南面으로 聽治 함이 大明麗天과 如하야 萬物이 畢照하거던 況臨政의 初에 群臣이 淸光一望 하기를 思하거늘 이에 御殿에 天顔을 障蔽함이 웃지 群情의 疑阻를 致함이 아인가. 宋朝의 儀가 皇帝聽政에 侍臣이 皆坐하고 經筵講官이 立함에 皇帝와 太后가 東西相對에 相距密近함으로 帝座도 簾內에 在하거니와 我朝의 禮에 侍臣과 講官이다. 俯伏하고 비록 史官이라도 仰視치 못하니 웃지 殿下가 簾障을 并設하리오. 慈殿同御할 時는 忠順堂面對의 儀와 如함이 今에 行하야 惑함이 無하고 後에 垂하야 可法할 것이다. 是時에 朝論이 涵々하야 謾譎함 이 先生에 及한지라 秋九月에 李芑가 啓曰 彦迪이 邪論에 惑하야 世子에 諂附하고 中宗을 背叛하야 十條書上에 人主의 手足을 繫하고 柳仁淑으로 交 結하야 逆賊을 營救하는 言이 多有하다. 臣이 臧吏의 女壻로 顯職을 不得하 다가 迪의 大憲時에 始解하얏스 즉 臣의게 恩이 有하나 爲國에 私를 不計한 다하고 大憲尹元衡과 持平陳復昌 等이 繼하야 勳爵을 削奪하다. 丁未九月에 無賴子의 匿名謗國의 變이 有함에 因하야 乙巳諸人에 大罪를 加하니 先生이 其 中에 亦在하야 江界로 安置하다. 大개 先生의 三朝委質에 進退의 心跡이 日星과 갓치 昭하야 言論疏筭가 引君當道에 忠誠懇惻이 始終一致로 一毫의 疵가 無하되 마춤 不免에 至한 것은 他가 無하고 처음 先生이 慶尙에 在할 日에 都事李天啓가 持平으로 赴召할 새 先生게 請하야 曰 當今卜相에 物論 이 李芑에 歸함이 何如오, 先生이 曰 其人이 陰險하니 相位에 置치 못할 것 이다 하얏더니 李가 果相에 兩司가 劾罷함으로 李가 其 故를 聞하고 深銜하 얏더니 至是에 李가 元勳으로 當國用事할 새 先生이 同朝가 되야 자주 矛盾 이 된지라. 一日에 先生이 院相으로 入直하야 注書를 召하야 書啓曰 罪人을 取服定罪함이 當然하거늘 近日에 三省訊鞠에 刑杖을 過用하야 經殞者 多함 에 橫冤이 有할가 恐하노니 校正杖으로 得情然後에 定罪하기를 望함 翌日에 芑가 啓草를 見하고 忿然曰 杖이 渠膝에 落할가 恐함인가하고 仁鏡이 前嫌 으로 先生을 反憾하고 元衡이 先生의 救己의 言으로 納交코자 하얏스나 先生이 不往이러니 由是로 深恨이러라 三憾이 合勢에 謀害코자 함이 餘力을 不遺하고 또 一時姦險의 徒가 善類를 誣하고 時相을 阿하야 利己코자 한 者 相環하니 凡先生의 所守는 彼의 所畏오, 彼輩의 今日得志는 진실로 先生의 平昔에 深憂力防함인 즉 先生이 忠으로서 獲罪함이 웃지 恠異하리오. 謫 命을 聞하고 舉家號泣하되 先生은 飲食言笑가 平時와 如히 曰 大夫人을 好 養하라. 皇天이 在上에 吾不久當還할 것이다. 先生이 謫所에 至한 明年戊申

에 夫人이 下世하니 이는 先生의 終天痛이오, 先生寒疾이 素有하여 益危之려니 이에 遺衣로서 設位하여 朝夕毀戚에 三年을 盡하얏스되 오히려 無恙하니 웃지 扶護한 바 아니리오, 處困行患으로 自安하여 進學著書에 其 功을 不輟하고 未明에 起하여 乾々夕惕하고 几案上에 自戒의 辭를 書 曰 吾日三省吾身 事天에 未盡이 有한가. 君親을 爲함에 未誠이 有한가. 持身에 未正이 有한가. 一日에 御史李無彊이 不意에 馳入이어늘 一府가 驚怖하여 不善의 意가 有한가 하얏스되 先生은 少動치 아니코 衣冠을 正하여 看書하니 其 夷險을 一視하고 死生窮厄으로 素操를 易치 아니함이 如此하다. 癸丑十一月에 以疾로 彼에 終하니 享年六十三이라 甲寅에 慶州로 返櫬하여 甲辰에 興海郡南達田里의 禱陰山에 葬하니 先隴을 從함이라. 初에 先生의 先考府君이 蚤歲에 儒로 聞하여 本道夏課에 居魁하얏더니 成宗께서 其 詩賦를 嘉하여 召見하시고 食物을 賜하여 國學에 留學하더니 後에 鄉里에 歸하여 後生을 訓하기로 爲事하얏스니 先生이 비록 趨庭의 訓에 不逮하얏스나 其 家業의 所自來가 有한 바이라. 孫夫人이 識慮가 有하여 慈愛로서 教督의 方을 懈弛치 아니코 舅氏孫吏判仲暉에 就學키하며 또 貧婁로서 遠邇에 資給하다. 先生이 英悟出人하고 天資近道하여 經史를 通하고 時文을 翫함이 不勞早成할 뿐 아니라 俗學의 外에 爲己의 學이 有함을 知하고 비록 名門에 受業은 未見하얏스나 道가 吾性에 備하고 其 說이 方冊에 具在한 즉 진실로 篤志하면 不得의 理가 無할 것이라하여 이에 講明體履에 致知誠意에 用力하고 爲人이 安重端詳하여 본래 高趣가 有하더니 自少로 群居隸業에 或喧呶가 有하여도 無聞한 듯하다. 年二十七에 五箴을 作하얏스니 畏天과 養心과 敬身과 改過와 篤志러라. 三十에 또 立箴을 作하얏스니 其 言이 皆古聖賢의 躬行心得切要의 旨라 其 日用動靜間에 操存省察함과 遵養時晦의 際에 懲窒遷改함이 實로 所事가 有하고 空言이 아니라 其 罷歸함에 州西北紫玉山下에 卜地하여 其 巖壑의 環奇와 溪潭의 潔淸을 愛하여 築室居之함에 其 堂을 名曰獨樂이라하고 松竹花卉를 樹하여 其間에 嘯詠釣遊하고 世故를 謝絶한지라. 一室에 端坐하여 左右圖書로 研精覃思에 靜中工夫가 前에 比함에 더욱 深專한 後에 向來有聞으로 未契한 者] 비로소 心融神會하여 親切히 有驗하고 沖恬의 趣를 養하여 歲月의 久를 積함에 性理에 潛神하여 聖賢進修의 方을 遵하고 高明에 玩心하여 鳶魚流行의 妙를 樂한지라. 其 可見의 行을 夷考컨대 其 事親에 愛敬에 篤하여 承順悅豫에 溫淸滌灑를 曲盡치 안임이 업고 一弟彦适로 手足갓치 友하며 治家에 法이 有하여 門庭이 肅然하며 奴僕의 業과 宗戚鄉黨의 撫待가 其 宜를 各得하며 祭先의 禮에 誠敬을 盡하여 奉先雜儀를 編輯함에 古今을 參酌하여 禮文을 定하고 또 禮記 等 書의 孝子慈孫齊祭의 文을 哀錄하여 觀省奉

行키하고 定力이 大有하여 비록 倉卒이라도 疾言遽色치 아니하고 靜正으로
 自持하며 全州에 在하여 節日에 俗戲를 張하거늘 監司金公正國은 正人이로
 되 往々히 顧笑를 不免하거늘 先生은 超然히 無見과 如하며 其 玉堂에 直함
 에 或同僚로 終日토록 相對無言하니 대개 持敬의 功이 深하여 矯爲함이 아
 니라. 身心性情에 本하여 家鄉邦國에 行하니 이른 바 有體有用의 學이오, 述
 古推今에 移孝爲忠인 故로 其 本朝에 立하여 進退建白이 如彼히 光明正大하
 야 言이 口에 不出할 뜻하고 體에 衣를 不勝할 뜻하나 其 姦邪를 斥하고 危
 難을 定함에는 直前無畏하여 비록 賁育이라도 奪치 못할 것이다. 要컨대 其
 言論風旨가 더욱 勸講에 備하고 衰職을 補하여 其 心懇々이 堯舜君民의 責
 으로 自任함으로 其 謫遷에 在함에도 拳々의 忠을 不勝하여 易經의 進德修
 業의 義로 八規를 衍하여 獻忠코자 하얏스나 時義의 不可함으로 莫進하얏스
 되 其 蓄積한 바는 더욱 可見할 것이다. 그러나 先生이 當時에 在하여 深히
 韜晦함으로 人이 有道함을 知치 못한지라. 滉의 不肖가 일즉 龍門에 登하여
 芝字를 望한지라. 또한 懵然히 覺지 못하고 深叩有發치 못하얏는지라 十數年
 來로 病廢林居에 塵蠹間에 窺覘이 有하나 依歸考問할 바 無한 然後에 慨然
 히 先生의 爲人을 想慕하얏노라. 次年에 先生의 庶子全仁이 先生의 纂修한
 바 諸書를 示하고 近에 全仁이 또 其 子浚을 遣하여 先生의 哀集한 바 詩文
 誌銘과 歷官首末과 言行事實로 來示하니 滉謹受伏讀에 反覆參究하여 古聖賢
 의 言에 質함에 이에 先生의 道學이 그 求함이 如此히 切하고 其 行함이 如
 此히 力하고 其 得함이 如此히 正하여 出處大節에 忠孝一致가 所本이 有하
 다. 先生이 謫所에 在함에 所作한 大學章句補選續과 或問求仁錄과 또 中庸九
 經衍義러라. 衍義가 成書에 未及하얏스나 用力이 尤深하니 此三書에 先生의
 學을 可見이오, 精微의 見과 獨得의 妙는 曹忘機漢輔와 無極太極을 論한 四
 五篇에 在하니 其 書의 言이 吾道의 本原을 闡하고 異端의 邪說을 闢하여
 精微를 貫하고 上下를 徹하여 粹然히 正에 一出하니 其 義를 深玩컨대 有宋
 諸儒의 緒餘로 考亭에 得함이 尤多하다. 嗚乎라 我東國이 仁賢의 化를 被하
 얏스나 其 學이 無傳하고 鹿氏의 末과 朝鮮에 反하여 豪傑의 士가 此道에
 有志한 者 非無하고 世에서도 此名으로 歸하나 그러나 當時에 考한 즉 明誠
 의 實을 未盡하고 後世에 稱한 즉 淵源의 徵이 無하여 學者로 尋逐할 바 無
 하고 至今泯々하얏도다. 先生은 授受의 處가 無하고 斯學에 自奮하여 闡然日
 章에 德이 行에 符하고 炳然筆出에 言이 後에 無하니 東方에 求하건대 其
 倫이 鮮하다. 青蠅이 止樊에 芳躅을 電往에 誣하고 中原采菽에 高山을 仰하
 야 興懷한 즉 先生의 德業行跡을 攄지 記述傳世치 아니리오 滉이 昧陋無聞
 에 是責을 任치 못할지라. 景仰尊慕의 心이 自己치 못하여 全仁의 請으로 掇

拾序次하야 他日知德能言君子의 裁幸을 嫉하노라 先生內子貞敬夫人을 封하
니 朴氏宣務郎崇阜의 女라 不幸히 嗣가 無하고 從弟通의 子應仁으로 爲後하
며 庶子一人은 卽 全仁이오, 一女는 未行이라. 全仁이 二子를 生하니 曰 浚
曰 淳이라. 全仁이 詩書를 習하고 義方을 知하야 玉山別業은 全人이 奉守云
丙寅冬十月乙亥 後學 嘉善大夫前工曹參判 眞城李滉 謹狀

元朝五箴并序

蓋聞古之聖賢 其進德也 靡日不新 無歲不化 惟日孜孜 死而後已 蓋欲盡爲人
之道而 無負於天之所與也 余生二十有七歲矣 行不中矩 言多違法 學苦而道不
成 年長而德不進 其不至於聖賢而 卒爲衆人之歸也昭昭矣 噫今日又是元朝也
歲且除矣 我獨依舊而不自新乎 作五箴以爲終身之憂云

其一 畏天箴

天生我人 付畀者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悖凶修吉 敢不祇畏 不言而信 不動而
敬 無微不察 無隱不省 從事於斯 潛心對越 一動一靜 順帝之則 永言配命 俯仰
無忤 斯須有間 便是自絕 罔而幸免 生也可愧 毫釐有差 便是獲罪 禱既無形 盍
反諸己 克己復禮 是曰無墜 存心養性 所以順事 不顯亦臨 其敢或欺 日乾夕惕
于時保之

其二 養心箴

惟心之德 至虛至靈 原其本體 廣大高明 內具衆理 外應萬變 放之六合 斂之方
寸 善養無害 與天地似 養之伊何 曰敬而已 敬之伊何 惟主乎一 當其不動 渾然
太極 敬以一之 其體乃直 不偏不倚 無二無適 勿忘勿助 從容自得 廓然大公 鳶
飛魚躍 洞開重門 不見邪曲 天理以全 人欲不萌 大本既立 達道乃行 惟敬之妙
宅心之地 久而既誠 純乎一理 位育極功 實本於此 人生稟賦 初無二致 一指肩
背 鮮知貴賤 養小失大 禽獸不遠 我既如此 敢不自勉 造次顛沛 服膺勿失 一念
或怠 神明在側

其三 敬身箴

我有我身 至重至貴 受之父母 命於天地 參爲三才 匪萬物比 既知其然 敢不自
敬 敬之伊何 持之以正 容貌必莊 衣冠必整 視聽有則 言動有法 淫樂慝禮 不接
心術 姦聲亂色 不留耳目 非禮之地 非正之所 足不敢履 身不敢處 進退周旋 必
於理合 出處行箴 一以義決 富貴不動 貧賤不移 卓然中立 惟道是依 是曰能敬
不辱不虧 無忝所生 庶全而歸 惟彼衆人 昧於自持 淫視傾聽 惰其四支 褻天之
畀 慢親之枝 營營食色 無廉無恥 遑遑利名 無命無義 不有其躬 惟欲之汨 我其
鑑此 惕然自飭 洞々屬々 臨深履薄 聖賢有訓 曰誠曰修 敢以此語 爲終身憂

其四 改過箴

人非上聖 孰能無過 過而能改 其過斯寡 寡之又寡 何至於無 無過曰聖 多過曰

愚 爲聖爲愚 在我而已 是以君子 必誠其意 心無過念 矧有過事 如或有之 卽改不吝 過消善全 其德日進 胡彼衆人 知過者鮮 知且憚改 矧曰遷善 恥過作非 過久成惡 我其鑑此 不遠而復 一念之萌 一言之發 必思合理 惟恐有差 夜以思過 晝以改之 武公自悔 賓筵是作 蘧瑗欲寡 知非五十 子路喜聞 顏淵不貳 聖賢猶戒 矧余愚鄙 齒之尙少 庸有不知 今其壯矣 曷不自規

其 五篤志箴

人有厥性 本乎天理 初無不善 孰愚孰智 乃知聖賢 與我同類 求之則得 不求則失 其機在我 敢不自勸 成湯日新 仲尼忘食 文王亶亶 伯禹孜孜 矧余後學 志大力微 一墮悠悠 造道可期 井不及泉 九仞奚益 學不希聖 是謂自畫 欲罷不能 顏氏之竭 任重道遠 曾氏之篤 我師古人 死而後已 彼何人哉 爲之則是

自新箴 戊申元日書于謫所

學求造道 志在體仁 行負神天 災及其身 忠虧報國 孝缺違親 反躬省咎 有慕古人 天道循環 絕徼回春 中宵發憤 思新厥德 有赫其臨 潛心對越 有幽其室 肅然祇慄 上戴下履 不欺毫髮 一念思誠 萬事盡職 克己復禮 俯仰無忤 箴以自警 服膺勿失